월요논단

김 태 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제주우주산업 비전 발표로 본 나로우주센터의 교훈

이달 1일 제주우주산업 비전발표를 보며 2001년 제주사회의 논란이 됐던 우주발사기지센터의 논란이 떠오른다. 제주유치가 어려워 전라남도 고흥으로 옮겨 세워진 나로우주센터는 2001년 1월 부지 선정이 발표되고 준공돼 2022년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가 이뤄졌다. 이는 대한민국 우수산업의 산실이 됐고 고흥은 우수산업지역의 선도지역이라는 브랜드 가치도 얻게 됐다.

나로우주센터는 원래 제주지역 건설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국책사업이었다. 20년전의 일들이라 잘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적을지 모르겠으나 뒤돌아보면 제주의 미래와 매우 직결된 문제였음에는 틀림없다. 당초 서귀포시 대정읍지역을 중심으로 우주발사기지 후보지역이 검토됐고 이 과정에 반대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반대의 배경은 우주발사기지 건설은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군사기지화의 우려 때문이었다. 사실 군사기지와 우주발사기지는 적을 상대로 하는 살상시설과 우주공간의 공익적 사용이라는 점에서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주발사기지와 미사일기지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산업적 가치판단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후 우근민 전 도정에서 건설반대의견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공식화됐고 고흥군에 우주센터가 건설된 것이다. 제주도청 차원에서 제주의 미래발전으로 어떻게 연결시킬수 있을 것인지, 군사기지화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발생 가능성과 대응은 가능한 것인지 치열한 공론화의 과정 속에 결정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제 또 다시 제주가 우주산업의 최적지라 자평하며 우주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 일이다. 기업을 유치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우주산업의 특징이다.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우주산업정책 예산이 몇 억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우주산업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지도 않고 제주도 내 기업도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로우주센터 유치 실패 이후 우리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자기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주대학교의 연구기관,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개발공사를 비롯한 중앙정부를 연결할 수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발표된 우주산업육성정책에 대해 그다지 호평을 얻지 못하는 것도 조직과 예산, 기초적인 인프라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제주도정은 지사가 바뀌어도 제주미래비전의 큰 틀속에서 초기 단계의 기초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서부터 우주산업과 생태계 구축을 통한 제주산업과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유도라는 중기와 장기 틀속에서 움직이는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열린마당

안전한 물 통합관리에 달렸다

고 기 봉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이장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농업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기후변화 문제 등과 맞물려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면서도 효율적인 물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농업용수의 노후 관로 정비 및 유수율 개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업용수를 상당량 지하수로 뽑아 쓰고 있지만 농가에 공급되기 전 상당수 관정과 관로가 20~30년 이상 노후되면서 유수율이 낮아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의 필요성은 줄곧 제기돼오고 있지만 정작 이의 실천은 지지부진한 것은 문제다. 따라서 농업용수의 개발·이용·관리의 전 분야에 걸친 발전적 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농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사계절 맑은 물을 공급하고 농업용 공공관정과 연결된 지하 매설 관로 및 필지별 수도전을 대상으로 관로망도 전산화 및 GIS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지금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용수(물) 관리를 위한 정책과 투자가 우선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자치경찰 이원화 제주 먼저 시행돼야"

오 지사, 내년 시행방안 추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방시대의 실질적 분권 및 특별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과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에 정부의 협력을 요청.

오 지사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이양과 관련해 제주는 이미 4660개를 받았고, 선제적으로 포괄적 권한 이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자치경찰 이원화는 제주에서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조직이 분리되지 않은 채 사무만 구분돼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해 2024년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 고대로기자

"배달음식점 집중 지도점검"

○…서귀포시가 최근 급증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강화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배달앱 등록 음식점 70여 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0명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

합동점검반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판매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조리시설 및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

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백금탁기자

사설

'보행자 보호' 법으로 강화하면 뭣하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됐다. 말 그대로 '보행자 안전'이 골자다. 보행자가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같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된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는 지난해 769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735건)보다 4.6% 증가한 것이다. 특히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지난해 18명이 숨지고 77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만 6명으로 2021년(3명)보다 더 늘었다. 또 지난해 제주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472명이 적발됐다. 2021년(132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했는데도 이를 어기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방증하고 있다.

평상시 보행자 보호를 등한시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실제 경찰이 지난 9일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에서도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단속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5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3건 등 총 18건이 걸렸다. 경찰에 적발되는 것으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이다. 문제는 보행자 보호에 신경쓰지 않다가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데 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보행자가 늘 안심하고 거닐 수 있도록 배려하는 운전자의 의식이다.

소나무 사라질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소나무는 전통적으로 '민족의 나무'라 불린다.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애국가의 소절처럼 곧은 절개와 굳은 의지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역사·문화와 궤를 같이 해 온 소나무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올해 초 제주시 한경면 일대에서 소나무 4900여 그루가 집단 고사했다. 산림당국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료채취를 통한 검경조사와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한경면 일대 소나무 집단 고사의 원인은 솔껍질깍지벌레에 의한 피해로 잠정 결론 났다. 집단 고사는 한경면과 인접한 한림읍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피해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재선충과 함께 소나무에 큰 피해를 주는 3대 산림 병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피해 원인이 잠정 결론난 한경면 일대 소나무에 대해 방제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의 소나무는 이미 재선충병에 의해 초토화됐다. 지난 2004년 처음 재선충병이 발생한 이후 246만 그루의 소나무가 사라졌다. 고사목 제거 등 방제 사업비로 투입된 예산만 2675억원에 이른다. 재선충병 피해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종식은 요원하다. 게다가 재선충병에 버금가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발생했고, 점차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림당국은 재선충병이 몰고 온 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소나무 집단 고사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병해충으로 100년 후에는 제주에서 소나무를 볼 수 없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부 고

임홍식(대신증권 이사) 아버지 **풍천 임공 광흡(前 JC특우회장·前 국제로타리 3662지구회장(36대)·향년 84세)**께서 서기 2023년 2월 11일 21시 24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3년 2월 14일(화요일)
▶발인일시 : 2023년 2월 15일(수요일) 오전 9시
▶발인장소 :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실
▶장 지 : 아흔아홉골 선영

부인 김미원
아들 임홍식 며느리 한승희
영식 고연임
태식 문현아
딸 임설아 사위 고경민
손자 임지호 외손녀 고우리아라
수호
태호
한호
손녀 임수연

※ 연락처 : 임홍식 010-3699-3050
임영식 010-9297-1208
임태식 010-3691-1428
김미원 010-3639-8216
임설아 010-3404-8216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고공 한근(前 제주중앙여자중학교 행정실장·향년 8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2월 13일

부인 부성여
아들 고형덕 며느리 양혜정
고대홍 임세영
고준혁 홍인선
딸 고수덕 사위 양기호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접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입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함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함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함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

차고지/주차장

市의 자기차고지갖기사업
* 市 지원 90% *
2023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중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 No.1시공업체
편리한생활건축설비
010-9908-9200
종합집수리/하자보수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3년 2월 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2월 13일

주식회사 미동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부록길 62(화북이동)
청산인 김 형 주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접 607평 (카페 A급 토지)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 높이 17m가능)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 (바다조망 건축가능)
5 월평포구 도로 근접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범섬 조망 180평 (주택 건축 가능)
7 고근산 뒤 5,000평 조경 식제 (별장 건축 가능)
※ 부동산중개사 아님

010-7328-1107, 010-6275-5200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